

# 1%대 소상공인 대출·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코로나 19 피해 극복 지원대책

### 소상공인·중기 8조5000억 추가 금융지원 1월~6월에 깎아준 임대료 절반 돌려줘

올해 상반기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 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8.5조원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만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거나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대료를 인하는 점포가 많은 전시장 20곳에 한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줄기로 했다. 코레일 구내매장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등 임대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2000만원 한도)하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

대료의 50%를 감면(2000만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여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8.5조 추가 금융지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도 8조5000억원 증액했다.

지난 7일 발표한 2조원 상당의 금융지원과 합치면 총 10조5000억원이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금융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기존 1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기업은행이 연 1%대 소상공인 최저금리대출의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연 2%대 후반의 우대금리 대출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는 특례보증을 1조원 상당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난 7일 발표한 1조8000억원에 3조7000억원을 추가했다.

시중은행들이 3조2000억원 상당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 큰 변화다. 기존 은행 대출보다 금리를 1~1.5%포인트 낮춰준다.

최소 6개월 이상 상황 안정 시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납부 유예 제도로 시행한다.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대책 및 규모

지원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b>1차</b> 기 조치 : <b>약 4조원</b> 재정   금융 : 0.3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li> <li>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행사용료 감면(300억원) 등</li> <li>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LCC 대상 운영자금용자(0.3조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원) 등</li> </ul>
<b>이번 대책</b> <b>2차</b> 행정부 : <b>약 7조원</b> 재정   세제   금융 : 2.8   1.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li> <li>임대료 인하여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세수감 1.7조원)</li> <li>소상공인 최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li> </ul>
공공·금융기관 등 : <b>약 9조원</b> 한은   공공기관   금융 : 5.0   0.5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li> <li>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li> <li>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li> <li>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li> </ul>
<b>3차</b> 추경 : <b>α조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li> </ul>

관광업, 식품·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 등 업종에는 부문별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올해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자금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 중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속도는 더 빠르게 끌어올린다.

신규 설비투자 및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 자금도 상반기 중 5조4000억원어치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전남도에 마스크 3만개 전달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목포·순천에 각 1000만원을 기탁했고, 여수·나주 등 지자체에 잇따라 성금을 전한다. 송중옥(오른쪽) 은행장이 지난 달 28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마스크 3만개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삼성 '그랑데 AI' 건조기 출시 한달만에 1만대 판매

삼성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그랑데 AI(인공지능)' 건조기가 출시 한달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랑데 AI는 세탁코스에 따라 건조 코스를 알아서 맞춰 주고 소비자의 사용 습관을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세탁기·건조기로 지난 1월 29일 출시됐다.

이 제품은 세탁기에서 건조기까지 조작할 수 있는 '올인원 컨트롤'과 세탁코스에 맞게 건조코스를 연동하는 'AI 코스연동', 9개의 정밀 센서와 국내 최대 용량의 컴프레서·열교환기로 '초고속 건조'가 가능하다. 기존 필터에 '마이크로 안심필터'를 추가해 열교환기로 가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열교환기 연결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코팅 처리하는 등 위생관리도 강화했다.

또 처음 도입된 그레이지 색상은 판매량의 30%를 차지하는 등 전체 판매를 견



인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와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까지 적용해 반응이 뜨겁다"며 "세탁·건조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전남 중기 "3월 경기전망 어둡다"

183곳 조사 SBHI 80.6

코로나19 확산에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번 달 경기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183곳을 대상으로 3월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년 동월(93.0)보다 무려 12.4포인트 하락한 80.6으로 나타났다.

전월(80.8)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주가 81.5, 전남은 79.1였다.

통상 건설업의 비수기가 끝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매년 3월 경기전망지수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하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반

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82.6) 대비 6.0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이 전월(77.5) 대비 소폭 상승(0.9)했으나 전년 동월(92.4) 대비 14.0포인트나 하락한 78.4를 기록했다.

수출전망은 전월(97.6)대비 무려 16.3포인트 하락한 81.3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이익전망(76.2~72.4)과 자금사정전망(72.0~70.5)도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중소기업 경영여로(복수응답) 결과를 보면 내수부진(73.2%)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가장 큰 예로 나타났다. 그다음 '인건비 상승(45.4%)', '업체간 과당 경쟁(43.7%)', '자금조달 곤란(28.4%)', '판매대금 회수 지연(23.5%)' 순으로 나타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월 503만원 직장인 연금보험료 7650원 오른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5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

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65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50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0% 안팎이다. 월 소득 486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봄철 안정적 전력 공급 전주 210만기 정밀점검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한국전력이 전주 210만기 정밀점검을 벌인다.

한전은 오는 5월까지 봄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특별 운영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전은 날이 풀리면서 지반이 약화하는 데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축대, 하천 제방 인근 전봇대 65만대에 대해 특별점검과 긴급조치를 완료했다.

3~5월에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산악 경과지와 주변 선로에 설치된 전봇대 201만기를 열화상 진단 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보강한다. 또 건축·토목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사 현장 인근의 전력 설비를 취약개소로 분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강풍·건조 특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동

계 건조기에 시행 중인 전국 3000여 개소의 전력차단기 재투입 차등운전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0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3	16	18	35	38	14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 일치						3,349,851,375	6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65,683,361	51
3 5개 숫자 일치						1,404,550	2,385
4 4개 숫자 일치						50,000	113,132
5 3개 숫자 일치						5,000	1,872,855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